정교회주보

제2532호

2025년 7월 6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4주일
성 시소이스 대수도자
(제3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 수도자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로마 6,18~23 … (봉)145
- 복음경 : 마태오 8,5~13 …… 11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진 설명

샹들리에

샹들리에(사진)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샹들리에는 금속 또는 나무로 만들며, 성당 중앙의 돔에 사슬로 매달려 있다. 샹들리에 정점은 돔에 그려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느님 나라의 중심이시며 교회의 수장이심을 나타낸다.

또한 샹들리에는 백성들을 향한 하느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 성령의 임하심, 성인들의 승리하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비잔틴 시대부터 '뽈리칸딜라'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였으며, 초나 올리브기름으로 불을 밝혔다. 지금은 대부분의 성당에서 전기를 사용한다. 둘레를 따라 보통 12사도가 그려져 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명명 축일을 맞이하며
- 인천 선교 40주년을 기념하여 -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2025년은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이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인천 선교의 시작은 이미 198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서울의 성 니콜라스 성당이 유일한 정교회 성당이었고, 모든 행정과 사목 업무는 단 하나의 사무실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때는 매일 소티리오스 대주교님(당시 신부님)과 함께 교회 업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주교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함께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느니, 한 달에 한 번씩 부산과 인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선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부산은 대주교님께서 직접 맡으시고, 인천은 제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부산과 인천 선교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1990년,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이 건립될 당시 대주교님께서는 제단을 네 개나 마련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주일마다 성찬예배를 네 번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이 점차 실현되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대주교님께서 안식하시기 전 사제들과의 마지막 회동 자리에서 저는 인천 성당 주변 지역의 재건축 설계도를 보여드렸고, 대주교님께서는 그 도면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제 모든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고, 대형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주교님의 축복과 기도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꿈과 삶 속에서 대주교님의 중보와 보호하심이 체험되고 있으며, 대주교님께서 축복하신 일들이 하나씩 실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의 모든 신자들은 마음을 모아 대주교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옆방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저희 죄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인천 성 바울로 성당 발전을 위해 중보해 주세요!

은총으로 사는 숨겨진 삶

요안나 수녀 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처음으로 수도원을 방문하여 그 입구를 거쳐 들어가는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목표,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 희망이 단지 성찬 예배에서 하는 고대의 기도일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훌륭하고 멋진 아치형 구조물은 아주 많은 세대를 거쳐 이룩한 승리의 경험을 증명하며, 기적을 행하는 성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약속을 입증합니다.

죄로 이끄는 욕망과 격정에서 자유로워지려는 투쟁을 통해 이들의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성 카테리나 수도원의 바울로 수도원장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같은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어디서든지 평온하게 살면서 잡음을 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거룩한 투쟁이 세상의 시선에서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 숨겨져 있어서 이웃을 즐겁게 하지도 않고, 그들의 칭찬을 받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좋은 일들이 많은 사회 속에서, 가장 선하고 위대한 일은 일반 대중의 인식 속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부들이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일’, 또는 ‘깨어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깨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내적인 소란을 일으켜서 하느님의 은총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혼란은 곧바로 ‘외적인’ 것이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사로프의 세라핌 성인(1754-1833)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그러면 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저 ‘유익을 주거나’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도와주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물질적 도움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혼의 평화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한 상태가 그러하듯, 거룩한 평화 역시 타인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내적으로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빈곤의 원인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면, 빈곤 그 자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겨나는 악한 생각을 곧바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불의와 탐욕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가장 큰 죄는 아주 작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 림

▦ 인천 성당 축일을 보내며

지난 6월 29일(주일), 축일을 맞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크리스토퍼 보제와 함께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을 방문하여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와 함께 주일조과와 성찬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인천 성당 토마스 교우의 도움으로 성당 외부에 설치한 성 바울로 사도 성화 공경대 앞에서 축성식과 함께 사도의 중보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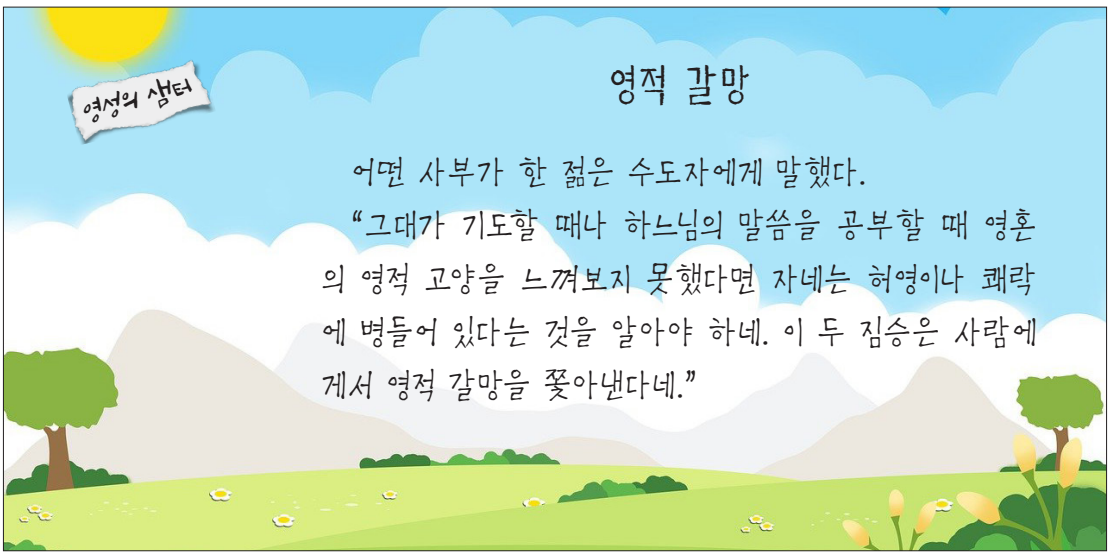
정교인이 아닌 비정교인도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7월 18일까지 받습니다.

-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일정: 7/25(금)-27(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8(월)-8/3(일): 초등학생 (참가비 18만원)
  8/4(월)-6(수): 중고등학생 (참가비 6만원)

▦ 시나이산 성 카테리나 수도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최근 이집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수도원인 시나이 산의 성 카테리나 수도원을 향해 불경스러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성 카테리나 수도원은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랐던 호렙산 기슭,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불타고 있지만 타지 않은 떨기나무'(출애굽기 3,1-4 참조)가 있는 자리에 세워진 역사적인 수도원입니다,

수 세기 동안 많은 정복자들이 이 지역을 지나갔지만 수도원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심지어 이슬람 창시자인 마호메트조차도 이곳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집트 정부는 15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이 수도원의 체제를 존중하지 않고 그 운영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성 카테리나 대순교 성녀의 중보로 하느님께서 권력자들을 깨우치시어 수도원과 수도자들을 향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모두 함께 기도드립시다.